

# 겨울별

이소영 글·그림



주제	겨울의 모습과 특징을 이해하고 소개하기
권장 차시	5차시
대상 학년	2학년
관련 주제어	겨울, 겨울 분위기, 함께, 가족, 동생, 생명
교육 과정 연계	국어 [2국05-01] 느낌과 분위기를 살려 그림책, 시나 노래, 짧은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듣는다. [2국05-02] 인물의 모습, 행동, 마음을 상상하며 그림책, 시나 노래, 이야기를 감상한다.
	통합 [2슬08-01] 겨울 날씨의 특징과 주변의 생활 모습을 관련짓는다. [2즐08-01] 겨울의 모습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작성	창원 전안초등학교 박정윤 선생님

## ■ 도서 소개 (출판사 책 소개)

세상의 끝에서 긴긴 잠을 자던 겨울이는 종이 울리면 깨어나 여행을 준비한다. 하얀 눈가루와 캄캄한 밤 가루를 넣은 가방을 들고 세상 속으로 매년 똑같은 여행을 떠난다. 하지만 모두들 겨울을 피하는 것만 같아 겨울은 몰래몰래 다닌다. 그때 혼자 다니는 한 소년이 겨울의 눈에 들어온다.

혼자 집에 들어가는 아이는 눈을 뿌려줘도 심드렁하니 좋아하지 않는다. 겨울은 자신이라도 함께해 주고 싶어 아이에게 다가가지만 겨울이 엄마 아빠를 데리고 갔다는 소년은 “겨울이 싫어!”라며 소리친다. 그러자 겨울은 아이에게 눈을 감아보라고 한 뒤 손을 잡고 또 하나의 겨울을 맞이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도와준다. ‘겨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새로운 동생을 맞는 아이의 모습과, 추운 계절인 ‘겨울’이 우리에게 주는 ‘함께’의 의미를 더불어 생각해보게 한다.

## ■ 학습 목표

- 그림책을 읽고 인상 깊은 장면이나 구절을 찾아 이야기할 수 있다.
- 겨울에 겪은 일, 겨울 풍경이나 이미지가 드러나는 사진을 준비하여 발표할 수 있다.
- 겨울의 특징을 이해하고 겨울을 상징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을 선택하여 소개할 수 있다.

## ■ 수업 준비

『겨울 별』은 어떤 학년의 아이들과 함께 읽더라도 이야깃거리가 풍부하다. 겨울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색감의 그림과 장면들은 겨울이라는 계절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겨울과 관련된 내 경험이나 느낌을 꺼내 이야기해 볼 수 있게 한다. 또한 동생을 맞이하는 마음,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겨울’의 중의적인 의미를 알아가는 과정도 재미있다. 그림책을 깊이 읽는다면 겨울이와 별의 모험에서 생명의 탄생 과정을 이야기해 볼 수도 있다.

이번 교안은 2학년 대주제 겨울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동기유발로 ‘겨울’ 하면 떠오르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경험을 활성화한다. 그림책을 함께 읽으며 그림을 자세히 살피고 내용을 파악한다. ‘내가 찾은 겨울 사진전’과 ‘여름에게 보내는 선물 가방’ 표현하는 활동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겨울을 소개하며 마무리한다. 다른 학년에서 교과 연계 뿐 아니라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에 적절하게 활용하면 좋겠다.

**수업 준비물** 겨울 사진, 색칠 도구, 도화지, 가위

## ■ 학습 과정

주요 활동		차시
읽기 전	'겨울' 떠올리기 - 겨울하면 떠오르는 것들은? - 겨울을 색으로 표현한다면? 표지 살펴보기	2차시
읽는 중	그림책 내용 파악하기 - 그림책 함께 읽으며 내용 확인하기  인상 깊은 장면 이야기 나누기 -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나 글귀 이야기 나누기 - 그림책을 읽은 소감 나누기 등장인물 마음 읽기 - 등장인물의 마음 변화 알아보기	
읽은 후	내가 찾은 겨울 사진전 - 겨울 풍경이나 이미지가 잘 드러나는 사진 소개하기	1차시
	겨울이 여름에게 보내는 선물 가방 - 여름에게 겨울 소개하기	2차시

### 읽기 전

#### 1. 겨울 떠올리기

##### ■ 겨울 느낌 이야기 나누기

- 겨울을 떠올리면 어떤 것들이 함께 생각나나요?  
예: 눈 / 눈사람 / 추위요 / 겨울방학 / 크리스마스 / 봉어빵 등
- 겨울을 색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색깔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예: 흰색 : 겨울에 눈이 올 때 주변을 하얗게 덮은 모습이 떠올라요.

검정색 : 겨울은 해가 빨리 저서 밤이 일찍 찾아오니까 어두운색이 떠올라요.

빨간색 : 크리스마스, 산타클로스가 떠올라서 빨간색이요.

연한 갈색 : 겨울에 자주 먹는 호떡이나 붕어빵, 어묵 색깔이에요.

## 2. 표지 살펴보기

### ■ 책 소개하며 표지 살펴보기

- 오늘 함께 읽을 책은 『겨울 별』입니다.
- 이 책은 이소영 작가의 작품이며, 글로연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 표지를 살펴봅시다. 무엇이 보이나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예: 제목 『겨울 별』에 별이라는 글자 대신 별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표지가 짙은 남색으로 어두워서 밤에 일어난 일 같아요.  
남자아이가 알 수 없는 생명체와 손을 잡고 뛰어가고 있어요.  
주변은 어두운데 가운데 두 아이가 있는 곳은 밝은 색이에요.  
표지 가운데 부분 흰색과 푸른색이 겹쳐져 있고 색이 번졌어요.  
두 아이가 어둠을 뚫고 우주로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 같아요.  
남자아이가 꿈속에서 유령을 만나 다른 세계로 모험을 떠나는 것 같아요.

Tip. 이 책은 그림책의 한 장면을 앞표지부터 책등, 뒤표지에 옮겨 놓았다. 책을 펼쳐 앞표지와 뒤표지를 함께 보여주며 이야기를 나눈다.

읽는 중

## 1. 그림책 내용 파악하기

### ■ 그림책 함께 읽으며 내용 확인하기

- 그림을 살펴보면 하얀 가방과 까만 가방에 넣은 선물이 무엇인지 예상해 봅시다.  
예: 하얀 가방에는 하얀 눈을 넣고 까만 가방에는 까만 밤을 넣는 것 같아요.
- 그림책 속 내가 여행을 떠난 곳은 어디인가요?  
예: 사람들이 사는 도시 / 우리나라의 겨울 등
- 그림책 속 '나'는 누구인가요?  
예: 겨울이에요.
- 겨울이 가장 좋아하는 풍경은 어떤 모습인가요?  
예: 사람들이 함께 있는 모습 / 가족들이 모여 즐거워하는 모습 등
- 겨울이 쓸쓸해 보이는 아이를 위해 어떤 선물을 주었나요?  
예: 하얀 가방 속에서 눈을 뿌려 주었어요.
- 아이는 왜 겨울이 싫다고 말했나요?  
예: 겨울이 아이의 엄마 아빠를 먼 곳으로 데려갔기 때문이에요.

겨울이 아이를 혼자 있게 했기 때문이에요.

- 겨울이 아이를 데리고 간 곳은 어디인가요?

예: 빛이 있는 곳 / 겨울이 시작하는 곳 / 생명이 자라는 곳

- 엄마, 아빠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이의 가족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예: 엄마가 동생을 낳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 동생 겨울이를 데리고 왔어요.

- 동생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예: 겨울이에요.

- 그림책에서 겨울이 의미하는 것 두 가지는 무엇인가요?

예: 계절 겨울과 동생 겨울입니다.

## 2. 인상적인 장면 이야기 나누기

### ■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나 글귀 이야기 나누기

-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나 문장을 이야기해 봅시다.

예: 별이가 엄마, 아빠와 함께 동생 겨울이를 보는 장면이 기억에 남아요. 부모님이 “우리 별이,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너의 동생 겨울이란다.”라고 말했을 때 별이는 섭섭했던 마음이 풀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 부분에서 주인공 별이 겨울에게 “고마워, 겨울.”이라고 인사하는 장면이 가장 인상에 남아요. 왜냐하면 겨울은 별이 혼자 외로울 때 옆에 있어 주었기 때문이에요.

### ■ 그림책을 읽은 소감 나누기

- 그림책을 함께 보며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예: 겨울은 춥고 차갑지만 이 책은 따뜻하고 행복한 느낌이에요.

제목 『겨울 별』은 계절 겨울과 밤하늘의 별을 뜻하기도 하지만 그림책을 다 읽고 보니 아이들의 이름이었어요.

제목만 보고 겨울이라는 계절에 대한 이야기일거라 예상했는데 동생이 생겨서 가족이 되는 이야기였어요.

아이는 동생을 낳으러 간 엄마와 엄마를 도우러 간 아빠한테 섭섭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겨울이가 찾아와 모험을 하면서 동생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 같아 다행이에요.

- 작가가 이 그림책으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 “함께하는 겨울”이라는 글에서 ‘함께’가 작가가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겨울은 날씨가 춥기 때문에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더 외롭고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렇지만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을 알면 그렇게 춥고 힘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겨울을 보내라고 쓴 것 같아요. 별이에게 겨울이라는 동생이 생겼으니 함께 사이좋게 잘 지내라고 쓴 것 같아요.

Tip. 그림책을 읽은 소감을 나누고 그림책을 쓴 의도나 그림책에 담긴 주제를 이야기 할 때 아이들이 느낀 바를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한다.

## 3. 등장인물의 마음 읽기

### ■ 등장 인물의 마음의 변화 알아보기

- 별이가 겨울이를 만나기 전 마음과 만난 뒤의 마음은 어떻게 변하였나요?

예: 엄마, 아빠가 곁에 없어서 외롭고 쓸쓸했는데 엄마, 아빠, 동생이 집으로 돌아와서 행복한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별이는 동생이 태어나면 엄마, 아빠의 사랑을 못 받을까봐 걱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겨울이와 모험을 하며 동생 겨울이를 받아들일 준비를 한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새로운 가족이 생겨 기뻐하는 모습이예요.

■ 비슷한 경험 이야기 나누기

- 별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나요? 동생이 생겨 섭섭했던 마음이나 형제에게 질투를 느껴봤던 경험이 있으면 이야기해 봅시다.

예: 저는 오히려 처음 동생이 생겼을 때 기뻐했는데 엄마 아빠가 동생만 챙기는 것 같아 가끔 섭섭해요.

저는 동생은 없고 오빠가 있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저와 오빠를 똑같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동생이랑 잘 놀다가도 자주 싸우는데 엄마가 동생 편을 들어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 가족과 함께 있어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있나요?

예: 잠자기 전에 엄마가 껴안아줄 때 편안한 마음이 들어요.

캠핑장 텐트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누워서 이야기 할 때 행복해요.

읽은 후

1. 내가 찾은 겨울 사진전

■ 겨울 풍경이나 이미지가 잘 드러나는 사진 소개하기

- 겨울 풍경이나 이미지가 잘 드러나는 사진, 겨울에 내가 경험한 일이 드러나는 사진을 준비하여 친구들에게 소개해 봅시다.

예:

			
<p>아침에 일어나 베란다 밖을 보니 눈이 와 있었어요. 겨울이라도 우리 지역에는 눈이 잘 안 오는데 눈이 내려 신기했어요.</p>	<p>겨울 방학 때 집에서 엄마랑 호떡을 만들었어요. 반죽을 곰돌이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막상 누르개로 눌러보니 엉망이 되었어요.</p>	<p>저는 겨울이 되면 크리스마스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크리스마스트리와 선물, 케이크를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요.</p>	<p>집 앞 공원에서 나뭇잎이 다 떨어진 나뭇가지에서 겨울눈을 보았는데 겨울을 잘 버텨내길 바랐어요.</p>

- 나만의 겨울이 캐릭터를 만들고 겨울이와 함께 겨울이 온 곳을 찾아봅시다.

예: 앙상한 나뭇가지, 쌓인 눈, 텅 빈 놀이터, 봉어빵 천막에서 찾은 겨울이 등



[아파트 단지 앙상한 나무에서 찾은 겨울이]

펠트지에 눈 모양 스티커를 붙여 만든 겨울이, 그림책 속에 등장한 겨울이 모양을 참고해서 그린 겨울이

Tip. 그림책을 읽어주는 시기가 겨울이라면 겨울을 탐색하고 사진을 직접 찍어 공유하면 가장 좋다. 현재 계절과 상관없이 내가 보낸 겨울이 드러나는 겨울에 찍은 사진을 준비하거나 겨울의 이미지를 검색하여 찾을 수 있다. 많은 이미지 가운데 왜 이 사진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들어보고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Tip. 겨울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간단하게는 겨울에 겪은 일을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겨울의 이미지를 입체 작품으로 나타낼 수 있다. 겨울과 관련된 이미지를 출력해서 나만의 캐릭터를 그려 콜라주처럼 붙여서 표현해도 재미있을 것 같다. 그 외 다양한 미술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다. 또는 겨울을 소재로 사람과 동물의 모습, 겨울에 하는 놀이나 스포츠를 신체를 이용하여 표현해도 좋다. 다양한 발상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 2. 겨울이 여름에게 보내는 선물 가방

### ■ 여름에게 겨울 소개하기

- 그림책에서 겨울이는 하얀 가방과 검은 가방에 선물을 넣어 세상으로 옵니다. 여러분이 여름에게 겨울을 소개하는 것들을 가방에 담아 선물을 해 보는 건 어떨까요? 겨울을 상징하고 대표할 수 있는 것들을 떠올려 봅시다. 겨울을 대표하는 간식, 겨울에 자주 쓰는 물건, 겨울 옷차림은 어떤 게 있을까요?
- 가방 곁에는 겨울에 어울리는 색을 칠해도 되고 겨울 느낌을 살릴 수 있는 무늬나 모양을 넣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



가방 바깥에는 눈꽃 무늬와 눈사람 모양을 그렸습니다. 가방 안에는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핫팩과 손이 트는 걸 막아주는 핸드크림, 겨울에 특히 어울리는 간식인 붕어빵, 호떡, 어묵을 넣었습니다. 겨울 외출에 빠질 수 없는 털모자와 목도리, 그리고 누르면 귀가 쫑긋 펴지는 토끼모자도 챙겼습니다.

Tip. 외계인에게 겨울을 소개하는 것들을 넣어 캡슐 만들어 보내기, 겨울이 되어 여름에게 편지쓰기, 여름이 없는 나라의 아이들에게 겨울을 소개하는 편지쓰기 등 겨울을 소개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해도 좋다.

## 【선택 활동】여름과 겨울 속으로

- 『겨울 별』 과 『여름,』 함께 읽기
  - 여름이와 겨울이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찾아봅시다.
  - 두 그림책에서 주로 쓰인 색깔을 비교해서 말해 봅시다.
  - 여름이와 겨울이가 되어 짝과 역할놀이(즉흥극)를 해 봅시다.

##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 여름, 이소영 (글·그림)

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여름, 무더위로 대변되는 여름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무겁고 지치게 한다. 하지만 여름 열기에 누그러진 의식의 반면은 오히려 느긋함의 숨을 트게 하지 않을까? 작가는 더위에 지쳐가던 순간에 시선을 바꿔 여름을 다시 바라보게 이끈다. 그러자 여름의 더위는 앞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에게 '잠시 멈추라'는 의미로 다가오고, 쉼 그늘을 만들기 위해 여름 나무가 무성했음을 알게 된다.

이처럼 더위에 대한 생각이 열리자, 여름 바다의 짹짹한 열기는 온몸으로 들어와 붉은 색의 팔레트가 되고, 내리치는 세찬 빗줄기는 선으로 살아나 더위에 매몰되었던 기억을 아름답게 그려나간다. 여름은 달게 익어가는 복숭아 위에 그 마지막 열기를 쏟으며, 우리 곁에 달콤함으로 남겨진다.

#여름 #여름분위기 #여름그림책 #계절 #색감이예쁜그림책

